

中 신동월그룹·한국 서치메디컬, 전남대병원에 방호복 1000벌



의료용품제조업체인 중국 신동월(新東月)그룹(대표 호명건)과 한국 (주)서치메디컬(대표 이사 문영필)이 지난 21일 코로나19 감염병지에 매진하고 있는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에 방호복 1000벌을 기증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전남중부권아동보호기관, 10명에 홈케어플래너 임명장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이 최근 홈케어플래너 임명식을 열었다. 2020년도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 진행에 따라 사전 교육을 수료한 사회복지사 4명, 심리치료사 6명에게 홈케어플래너 임명장이 전달됐다.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정 내 재해대를 예방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복권위원회 지원을 받아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국토정보공사 곡성구례지사, 지역 농가 돕기 농산물 구매



한국정보통신공사 곡성구례지사(지사장 홍영아)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제철 농산물 구매에 나섰다. 개학연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중단되는 등 로컬푸드 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지원에 나섰다. <국토정보공사 제공>

강진군귀농인연합회, 코로나 극복 성금 100만원 기부



강진군귀농인연합회 회원 100여명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강진군귀농인연합회는 유기농 교육,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 등 귀농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토산어종 방류하고 새 양식기술 개발 “생태계도 어업인들도 함께 웃어야죠”

수자원 보존·양식기술 연구 조우현 전남 민물고기연구소장

관상어·회귀어종 등 보존·관리 양식기술 연구·담수어 전염병 예방 25개 수조에 42종 3800마리 보존 2002년부터 강·하천에 물고기 방류 올해부터 쏘가리 대량양식 기술 개발 어업인에 새 양식기술 전수도

최근 진도 의신천, 소포만 등지에 10cm 길이의 뱀장어 8500마리가 방류됐다. 수온 상승 등 어장환경 변화, 치어 남획 등으로 악화된 수산업 여건을 극복하고자 전남 민물고기연구소가 진도군과 함께 시행한 활동이었다.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에 있는 전남 민물고기연구소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소속으로, 전남 지역 각종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양식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다.

조우현(52) 전남민물고기연구소장은 “1986년 ‘전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문을 연 뒤 35년째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남 지역에서 토산어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소는 연구·자원조사·기술보급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25개 수조에 과배금용, 홍룡, 구관호 등 42종 3800여 마리를 보존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토산어종 방류를 통한 자원조성 사업이다. 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환경 오염 등으로 생태 자원이 파괴된 전남 내강, 하천 등에 물고기 등을 방류해 왔다.

이 활동에만 지난해까지 총 41억 8300만원이 투자됐으며, 뱀장어뿐 아니라 잉어, 붕어, 다슬기, 동남참게, 자라 등 10종 2399만 3000마리를 방류했다. 올해는 6억 2500만원을 들여 뱀장어 등 9종 151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물고기는 클수록 폐사율이 낮아지므로, 10cm가 넘는 뱀장어 등 우량 종자만 방류하고 있다.

“내수면 생태계를 복원하는 효과도 있지만 어업인들의 생업을 지켜 주는 효과도 있어요. 어획량이 크게 떨어져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많거든요. 현지 어업인에게서 ‘물고기를 방류해 준 덕에 수산자원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차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연구소는 각종 연구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토산어종이나 관상어, 회귀 어종을 보존·관리하는 연구 활동으로, 종자 생산뿐 아니라 담수어 전염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연구가 대표적입니다. 건강한 뱀장어 치어(親魚·알을 낳을 수 있는 어미 물고기)를 길러 어업인에 공급하는 일이지요. 전국 내수면 연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뱀장어를 연차별로 관리해 지금까지 1만 3000마리의 우량 친어를 키워냈습니다.” 연구소는 올해부터는 쏘가리 대량양식 기술을 개발한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먹는 식성 때문에 대량 양식이 힘들었으나, 초기 먹이생물은 물론 성장 단계별로 줄 먹이를 집중 연구해 오는 2024년까지 민간에 보급될 수 있는 양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업인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전수해 주는 것도 연구소의 역할이다. 해마다 100회 이상 양식상담과 기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116명에 이르는 어업인이 연구소로부터 양식 기술을 전수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품종의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새로운 양식기술을 개발해 전남 수산 자원을 보존하며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동구 ‘아동친화 환경조성 우수지자체’ 아동 인권 존중·사회 분위기 확산 기여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친화 환경조성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표창도 받는다.

이번 표창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국 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 존중 및 아동복지 기여도, 사회참여 등을 종합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다.

동구는 아동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확산한 공을 인정받았다. 가정·학교·마을에서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아동맞춤형 생활환경 구축 ▲아동의 꿈과 재능을 실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환경 구축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 등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곧 지역 사회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며 “아동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충분한 권리를 누리고,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드는데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재난심리센터-참마음상담센터 재난 대응 협약



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참마음상담센터가 21일 재난대응 심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전남도 내 재난정신건강관리 체계구축과 재난심리회복지원 등에 관해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사항은 ▲고위험군 재난경험자(교통사고 및 화재 등)의 연계·의뢰 및 네트워크 활성화 ▲재난관련 정보 교류 및 활동지원 ▲상호 기관의 홍보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사항 지원으로 상담지원 네트워크를 구

축해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예방 등이다.

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석)가 2016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조직이다.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이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등 재난심리회복지원활동을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최해규·최은애씨 차남 종육군, 이경(대림종합건설 회장)·국춘화씨 차녀 유현양=25일(토) 낮 12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 ▲윤봉근(전 광주시의회 의장)·최영은(교사)씨 장남 자민군, 배동우(건설회사 대표)·박명숙씨 차녀 서영양=25일(토) 오후 5시 30분 광산구 수완동 드메르웨딩홀 2층.

일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연호, 숙식·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기정양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강추치 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

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 정신건강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던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분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윤순자씨 별세, 이동희(전 광주일보 기자)씨 모친상=발인 25일(토) 오전 9시 순창현대장례식장 063-653-4444.